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 청년 통합지원...예산 34억 투입

복지부, '청년복지 5대과제' 발표...각각 10만명·51만명 추정 '청년 미래센터' 신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영게어러)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합 지원을 처음 실시한다. 저소득 가족돌봄 청년에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집값 상승,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로 현대 청년들의 어려움을 커지자 정책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청년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5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

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통합지원한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청년(13세~34세) 중 0.8%에 해당한다.

청년 미래센터는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봄·가사·심리·경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지원대상은 960여명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청년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뜻한다. 이 중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며 교류가 없는 청년이 은둔청년이다.

복지부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5%인 51만 6000명, 은둔청년이 2.4%인 4만7000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脫)고립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예산은 각각 21억원, 13억원 투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0만원으로 다시 올린다. 정부는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에 대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위기경제 대응 필수 3대 민생 사업' 좌초하나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 62% 감소 국회 예산 심의서 증액 되지 않으면 사업 대규모 축소·취소 불가피

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년 정부의 민생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관련 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예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 등이 나온다.

19일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3525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94억원에서 내년 756억원으로 62.1%, 사회적기업 예산은 1329억원에서 500억원으로 62.4% 감소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인 상생 카드 지원에 862억원(국비 166억원 포함),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73억원(국비 113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99억원(국비 68억원)을 책정했으나,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대규모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예산 문제로 지난해 10%였던 할인율을 7%(설, 추석 긴 달에는 10%)로 낮췄다. 내년에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할인을 중단하거나 자체 예산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

에서 400만원씩 더 적립해 만기 공제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연 일자리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광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위기 경제 대응 필수 민생 3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국 공통 사항인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청년, 취약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민생 사업들이 만큼 급급적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지탱할 계획이지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이 1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정적 어촌 정착 '전남귀어학교' 9기 개강

해양수산과학원, 잠재 어업인 20명에 현장 밀착형 기술 전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잠재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수산업 기술을 전수해 안정적 어촌 정착을 돕는 '전남 귀어학교' 제9기를 지난 18일 강진에 있는 전남 귀어학교에서 개강했다.

이번 9기는 20명으로 구성, 10월 20일까지 5주간 운영된다. 교육생은 전남 7명(35%), 경기 6명(30%), 광주 3명(15%), 그 외 지역 4명(20%)으로 모두 전남으로 귀어를 희망하고 있다.

첫 1~2주치는 귀어 정책과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현장 견학을 추진한다. 3~4주치는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 품종에 따라 선택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도어가와 어촌살이 체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마지막 5주치는 귀어 성공사례 및 창업컨설팅, 금융정책 정보를 듣고 자신에게 맞는 귀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9기 교육 과정 이후에는 귀어학교 수료자에게 제공되는 보수교육을 2주간 운영해 귀어학교

수료생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수료생이 희망하는 현장실습 어가 1대1 매칭을 통해 귀어 지역·업종 탐색 기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9기 교육생들에게 "귀어 희망자의 인성학교가 될 전남 귀어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교육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 관리를 통해 안정적 어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귀어학교는 2020년 6월 개교를 시작으로 1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 중 49명(45%)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이 중 47명(96%)이 전남지역 어촌으로 정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광주 43만명

어린이·임신부·고령자 대상...내년 4월까지 순차 개시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도 않은 채 지난 15일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 상황이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시작된 2023~2024학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 총 1215만 명이다. 광주에선 43만명이 무료 접종 대상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2회 접종 대상이 20일부터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다. 생후 6개월에서 9세 사이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올해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달 5일부터는 나머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내달 11일 75세 이상, 16일 70~74세, 19일 65~69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종료일은 모든 대상이 내년 4월 30일까지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2만여 개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맞을 수 있다. 접종기관에 갈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가져가면 된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 무료 접종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의 경우 국가 무료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만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3만2000명에 대해 자체 무료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진석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으로 인해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겨울철 본격적인 독감 유행 전에 접종 일정을 확인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면 적 : 건물(369㎡), 대지(2,584㎡) 임대시설물 : 목적용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공고
(회사 분할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해를 위한 공고)
당 회사는 2023년 09월 18일 제18회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사결정(분할공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임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본 회사의 재산(명암)의 일부인 장기공시발행권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운 가맹 주식회사 정이앤지(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의 발행주식 15,000주를 감소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임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회사의 영수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 회사분할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본 회사의 주주들은 본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분할회사 주식회사 플랜트
중앙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림로46-72, 2층
사무이사 정영철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정이앤지
중앙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림로46-72, 2층
사무이사 정영철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한글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